

주담대 금리 고정→변동형 ‘유탄’ 차주 원리금 상환부담 상승 우려

고정금리, 변동형 보다 빠르게 상승 차주들, 이자 낮은 변동형 갈아타
기준금리 인상효과 시차두고 반영
대출기간·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해야

장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차주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3.9%, 변동금리 비중은 56.1%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7.0%였던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1월 46.6%로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43.9%까지 떨어졌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53.0%에서 53.4%로 오른 뒤 6월 56.1%까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 변동형 상품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자, 당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는 차주들의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하고 있다.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63.1%로 변동금리보다 높았다. 그러나 6월 신규 취급액만 놓고 보면 고정형 비중은 37.7%로 떨어졌다. 기존 대출에서는 고정형 비중이 높지만, 최근 신규 차주들의 선택은 변동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보다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6월 말 4.241%에서 7월 말 4.343%로 0.102%포인트(p) 올랐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5월 2.90%에서 6월 3.05%로 상승했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신규 차주들이 변동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장 고정금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현재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형보다 낮아 차주들이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코픽스와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향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현재 금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대출 기간과 금리 상승 가능성, 상환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DL이앤씨 안전관제실.

/DL이앤씨

DL이앤씨,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사내 TF 발족, 안전체계 전면 개편

DL이앤씨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근로자 체감형 복지 확대 등 건설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6일 “사내 TF를 발족해 현장 관리뿐 아니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강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작업중지권 포상 확대 외에 업계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을 통한 실시간 위험 예측·경고 강화 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AI 기반 ‘선제적 위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 시스템과 AI 위험도 분석 모델을 연계해 사고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상정보와 중장비 이동, 화재 감지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황을 예측하고 경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유사 사고 통계 분석을 넘어 작업자의 작업장소와 행동 패턴까지 AI가 함께 분석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 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안전 배패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나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매출하락 감수… 코인 거래소 ‘수수료 경쟁’

점유율 확대·이용자 이탈방지 나서
코인원·빗썸, 수수료 인하 쿠폰 발급
업비트, 수수료 인하·조건부 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신규 투자자가 줄어든 만큼, 한정된 투자수요를 끌어 오려는 전략이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회원에게 거래 수수료를 0.04%포인트(p) 인하하는 ‘바우처’ 발급을 시작했다. 혜택은 30일 동안 제공되지만, 바우처의 만기가 됐거나 잔여 기간이 7일 이내라면 횡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빗썸도 30일마다 연장되는 ‘수수료 쿠폰’을 통해 유사한 거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업비트는 별도의 쿠폰을 발급하는 대신 기본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 중이다. 코빗도 지정거래 매수 시 조건부로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들이 수수료 경쟁에 나선 것은 시



AI가 생성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경쟁 이미지.

/따눔AI

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이용자 이탈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거래소 간 송금도 자유롭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로 이동한다.

거래소들이 매출의 약 97~99%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하락을 감수한 ‘초강수’다. 다만 수수료 중심의 경쟁은 지속되기 어렵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들의 매출도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다.

가상자산 거래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코픽스)의 거래대금은 약 1464억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2분기의 2897억달러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5개 거래소 중 4곳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1분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냈던 업비트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엄밀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입법공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법은 기본법의 부재로 규제범위가 불분명하고 사후규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인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등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도 걸림돌이다.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입법시계는 멈춰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까지 입법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가 지난 6월 해체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오는 8월 말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10~11월에는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연내 입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케이뱅크 “알뜰폰 요금제 28종 비교하세요”

제휴 서비스 2종 선보여

케이뱅크는 생활비 절약부터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휴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경매정

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다.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뜰폰 브랜드 티플러스 페이지를 통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

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해당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 서비스 탭의 생활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AI 기반 경매정보 플랫폼 ‘방집고옥션’과 제휴해 ‘AI 부동산 경매 찾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매 물건을 탐색하고 매물 기본 정보와 투자 분석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나유리 기자

SK에코플랜트, AI 인프라 사업 성과 공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성과와 ESG 경영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제조시설과 산업용 가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성과가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SK하이닉스의 청주 D램 생산공장인 M15X 준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이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

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에코플랜트의 임직원 봉사 활동 시간은 총 5만208시간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AI 인프라 사업장 인건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평가에서는 리더십 등급인 A-를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총 76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사회·문화·인재 등 5개 분야를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국토부, 체코 정기 항공편 운항수 확대

주 7→10회… 신규 항공사 취항 기대

지난 3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항공편이 늘어난 데 이어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의 운항 가능 횟수가 주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동유럽 여행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29일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주 3회 추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가 항공사에 허용하는 주간 운항 가능 횟수를 뜻한다.

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에서는 대한항

공이 주 4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번 협의로 신규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프라하 노선 운수권은 높은 수요를 반영해 2024년 주 4회에서 7회로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여행업계와 공항공사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년 만에 추가 증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운수권도 각각 주 14회, 주 21회로 늘렸다. 항공사들이 동유럽 노선을 더욱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채리 수습기자